

# 曹偉의 「萬憤歌」 研究

金 周 坤

## <目 次>

I. 緒 論	4. 作品의 檢討
II. 本 論	5. 作家意識의 宪明
1. 作家의 生涯 및 爲人	6. 後代作品과의 相關性
2. 曹偉의 詩文創作과 文名	III. 結 論
3. 萬憤歌의 創作背景	

## I. 緒 論

士大夫層은 府路에 나아가면 權柄으로써 得勢가 可能할 수 있고, 失意하면 得罪하면 流配生活로 不遇待命하여야만 했다. 豪華의 生涯는 一時에 零落되고 流配客이 되어서는 流配地에서 恨\_minus\_恨 -울분과 애매한 心緒를 哀訴하며 戀君之情과 思親의 所懷를 吐露하게 된다. 流配文學類에 소속되는 作品은 이런 經緯로 創作되었으며 本稿의 對象인 萬憤歌도 그例外는 아니다.

이 萬憤歌는 朝鮮朝 流配歌辭의 嘴矢가 된 曹偉의 作品이다. 일찌기 順菴 安鼎福에 依한 手錄과 細注가 있었고,<sup>1)</sup> 近者에 와서는 先學 李家源, 李相實, 趙東一 等에 의해서 簡略히 紹介가 되어진 바가 있다.<sup>2)</sup> 한편 本歌의 作家는 儒家의 剛直한 士類이면서, 作品의 根底에는 道教의 發想이 자리잡고 있는 等多少의 儒教·道教의 면을 同時に 포함하였다.

筆者は 本作品과 관련된 傍證資料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그 宗教의 心象을闡明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어, 該 作品의 具體的 論議때문에 本稿를 계획하였다.

本稿는 먼저 作家에 대한 考察로써 生涯 및 爲人을 檢討해 보고, 이어서

1) 奎章閣所藏本《雜同散異》第44冊 所收。

2) 李家源, 「萬憤歌 研究」, 《東方學志》第六輯, 延世大, 1963, pp.153~167.

李相實,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74, pp.70~78.

趙東一, 《韓國文學通史》2, 知識產業社, 1983, pp.299~300.

該作品과 關聯을 갖는 曹偉의 詩文創作活動을 究明코자 한다. 다음 作品의 考察은 內容分析을 통하여 抽出된 各其 項에 대한 具體的 展開樣相과 作家意識을 밝혀보며, 作品構成上의 特徵이 同時에 檢討된다. 끝으로 後代作品과의 相關性을 體系化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作家의 生涯 및 爲人

作家의 生涯 및 爲人을 檢討하는 境遇에 〈年譜〉가 실려 있는 文集이 現存하고 있을 때는 그 作業이 容易하다. 아울러 그 밖의 補助資料를 援用해서 關聯된 記錄들을 소상하게 살핀다면 該 人物의 生涯와 爲人을 具體的으로 알 수 있다.

萬憤歌의 作家 曹偉의 경우는 遺業을 文字에 전한 文集이 남아 있고, 기타 諸 履歷을 밝힐 수 있는 記錄物도 그렇게 貧弱하지는 않은 實情이다.

그의 生涯 및 爲人을 檢討해 볼 수 있는 資料는 後孫家에서 所藏하고 있는 《梅溪文集》10卷5冊과<sup>3)</sup> 《海東名臣錄》, 《金陵誌》,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野乘》, 《燃黎室記述》等 諸 關聯文獻을 들 수가 있겠다. 曹偉의 年譜는 文集 卷之一의 冒頭에 소개되었는데, 그 分量이 20餘面에 이른다. 曹偉는 本貫이 昌寧이며, 縣監을 지낸 曹繼門의 아들로 端宗 2年(1454) 7月 慶北 金陵郡 凤溪里에서 出生하였다. 字는 太虛, 號를 梅溪라 했으며, 朝鮮朝 初期 名臣인 曹錫文의 徒侄이다.

그는 姉兄인 佔畢齋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成宗 5年(1474) 21세에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였다. 이듬해 檢閱이 되었고, 同王 7年 丙申에는 承文院正字로서 賦暇讀書文臣의 영예를 얻었다. 成宗 10年(1479)에는 永安道 敬差官이 되었고, 成宗 12年(1481)에는 弘文館修撰, 知製敎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承文院正字로서 下記의 國家의 大事業에 同參했다.

曹偉는 數次에 걸쳐서 詩製에서 壯元하여 文名을 떨친 바가 있었고, 國語變遷史研究에 큰 자료가 되는 分類杜工部詩譚解 題解에 義砧과 같이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서 杜甫詩를 最初로 譚解하게 되었다. 이 文獻은 25卷 19冊

3) 《梅溪文集》의 完帙本은 現在 啓明大學校圖書館 所藏本이 있다. 그런데 曹偉의 《梅溪文集》의 경우는 既刊圖書解題類에서는 書誌調查조차도 소홀히 다루었다. 《梅溪文集》은 本項 以下 《文集》이라고 略稱한다.

國會圖書館, 《韓國古書綜合目錄》, 1969, p. 215 參照.

으로 成宗 12年(1481)에 刊行된 것이다.

그 후 成宗 15年(1484), 曹偉가 弘文館應敎로 있을 때에 老母奉養을 위해 서 辭職後 歸鄉을 請하니, 成宗은 特별히 金山과 가까운 咸陽의 郡守로 임명하는 恩寵을 내린다. 그때 成宗은 曹偉에게 親書를 보내어 學問의 進行을 下問했고, 老母의 奉養에 보탬이 되도록 쌀과 잡곡도 내렸다 한다.

이듬해인 成宗 16年(1485) 乙巳에 曹偉는 咸陽郡守로 있으면서 慶尙道觀察使인 李克基, 前 居昌縣監 俞好仁과 협력하여 三人 所製의 詩集을 完成하여 成宗께 進上하였다. 이로써 두 君臣關係는 돈독한 사이에 이르게 되고, 이 上下의 嘉話는 널리 알려진 바가 있고, 이러한 여전하에 曹偉가 配所에서 戀君之情을 토로한 萬憤歌를 짓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成宗朝에 官職履歷은 成宗 22年(1491) 檢詳, 掌令을 거쳐 다음해 同副承旨, 都承旨, 그翌年 戸曹參判, 忠淸道觀察使에 오른 것 뿐이다. 이어서 燕山昏政에 접어들자 史草와 관련한 그의 生의 悲運은 싹트게 되었다. 燕山君元年(1495)에는 官이 大司成을 거쳐서 知春秋館事에 이르고, 또 主要職責인 實錄編纂의 任務를 부여받는다. 이때에 史官 金駟孫이 쓴 吊義帝文을 史草에 收錄하여 올리자 曹偉는 原文대로 收合하여 엮게 된다. 이 吊義帝文의 內容은 楚國의 項羽가 自國의 懷王을 죽인 故事を 引用하여 世祖가 端宗의 地位를 築奪한 것을 讽刺한 南秋江의 六臣傳과 같은 성격의 글이다.

官은 다시 燕山君 4年(1498)에 同知中樞府事에 이르게 되고, 이 때에 그는 賀聖節使로 明으로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歸路에서 柳子光의 참소로 戊午土禍에 連累되어 金宗直의 文集 刊行人物인 鄭錫堅과 함께 鞠問을 당해야 했다. 이 文集刊行의 役事에서 曹偉는 編輯의 책임을 맡았다. 그래서 義州에서 官員에게 被逮, 投獄되었다. 그런데 李克均이 先代王의 龕臣이라는 간청을 했기 때문에 曹偉는 겨우 保身命이可能했었다. 그러나 結局 義州에서 順天으로 移配되는데, 이 流配의 苦行과 抑鬱로 인해서 得病하게 되고 配所에서 49歲로 絶命하니, 이때는 燕山君 9年(1503)이었다.

그가 順天 配所에서 病死하게 되자 故地인 金山에 歸鄉하여 葬禮만은 마쳤다. 하지만 翌年 燕山朝 10年(1504) 王命에 의해서 前罪를 追錄 당하여 剖棺斬屍당하고 그 尸身은 무덤 앞 바위 밑에서 사흘을 벼려 둔 채 그 누구도 收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曹偉의陋名은 中宗代에 와서 풀리었고, 後代인 肇宗 34年(1708)에 更曹判書가 追贈되었고, 文莊이란 謂號까지도 내리었다. 그의 墓

所는 故鄉인 凤溪 先塋下에 位置해 있으며, 黃潤의 松溪書院, 金山 景濂書院, 配所였던 順天 玉川書院 등지에서 配享되고 있다. 現在 凤溪에는 舊居地였던 梅溪室이 남아 있고, 神道碑도 전립되어 전하며 아울러 曹偉를 추모하는 梅溪白日場이 上記 舊家에서 每年 열리고 있다.<sup>4)</sup>

以上과 같이 曹偉의 生涯를 간략히 記述하였다. 그런데 曹偉는 信義로써 風俗과 法度를 妥고 時俗의 巧言令色을 싫어하는 典型의이고 一貫된 儒學者的 性品을 지니었다.<sup>5)</sup> 그의 《文集》에 첨록된 家狀이나 行狀에 적힌 後人들의 記錄을 보면, 그는 不義에 굳복하지 않고 正義의 義憤心이 강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燕山朝의 政治獄事에 관련이 되는 所以然이며, 그가 남긴 萬憤歌의 創作動機와도 關聯을 가진다.<sup>6)</sup>

## 2. 曹偉의 詩文創作과 文名

曹偉는 5歳 때 世祖 4年(1458), 庶弟 曹伸과 同學의 誼를 맺고서 學問修學의 과정에 入門한다. 이 시기부터 그는 才思卓越하여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成宗 5年(1474)에 登科를 始作으로 同 7年(1476)丙申年에 檢閱과 承文院正字를 거쳤는데, 이것들이 그의 文才와 文名과 관연을 갖는 초기의 관직들이 되겠다.

그리하여, 聰明過人한 者를 선발하여 賜暇하고 京外閑處에서 적의로 讀書하게 한 賜暇讀書文臣의 영예를 20歳에 누리게 된 事實만으로도 그가 詩文創作에 대한 識見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成宗 10年(1479년) 永安道敬差官에 승직하기까지 그는 數次에 亘하여 詩製의 모임에서 壯元하여 文名을 朝野에 훤전하게 했다. 이처럼 曹偉는 文學의 才質이 출중하였던 관계로 成宗의 총애를 입은 바가 자못 커졌다. 實例로, 仁政殿에 招致되어 百官이 배석한 가운데 《東郊觀獵排律三十韻》과 《賀親行釋奠頌》을 짓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가 창작한 頌이 가장 뛰어났다. 그는 또 金訴과 더불어 《仁政殿早朝律詩》를 짓게 됨에도 中格이 되기에 充分하여 駿馬 一匹씩을 하사받았다.<sup>7)</sup>

後日, 宣祖朝의 權文海도 梅溪 曹偉가 文名이 높았고, 才質이 拔群했음을 인정하여 '士於詩文 以文章 大被成廟獎遇'<sup>8)</sup>라 評했다.

4) 金泉市文化院, 《내고장 우리 향토》 1983, p.126 參照.

5) 이러한 면은 《文集》序文, 行狀에 잘 나타나 있다.

6) 萬憤歌의 창작동기는 《文集》에 수록된 年譜을 통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7) 《成宗實錄》探求堂影印本, 1986年版, 卷之百二十, 第四章 參照.

8) 《大東韻府群玉》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5年版 卷五, 第五十八張 參照.

따라서 成宗은 曹偉의 재질을 아끼고 탄하여, 28歳時인 成宗 12年(1481) 12月에는 弘文館修撰, 知製教兼經筵貽官, 春秋館記事官, 承文院校檢으로서 杜詩의 謳解事業에 관여하도록 했다.

그가 1495년 吊義帝文 사건으로 流配生活을 겪으면서 지은 국문 가사가 萬憤歌인데, 流配生活中에도 책을 놓지 않고 많은 詩文과 저술을 남겼으니, 그의 絶筆로써 梅溪叢話가 있어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그가 詩文에 대한 견문을 가졌음은 文匡公 洪貴達이 쓴 〈墓誌銘〉에서도 '有能詩聲神氣'라 했으니,<sup>9)</sup> 가이 짐작이 간다. 남겨진 作品으로는 鷄林八觀 8首와 下記에 紹介한 300餘篇에 달하는 詩文을 들 수가 있겠다. 그 가운데 一例로 《鷄林八觀》은 慶州地方에 전승되고 있는 新羅史蹟을 제재로 노래한 것으로 懷古의 心情을 담아 故事와 典據를援用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曹偉의 詩文創作活動은 當代의 時代의 背景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 그는 成宗·燕山君朝에 있어서 第一의 文名을 얻었다.

그의 文學遺產으로서는 《文集》에 漢詩 300首가 실려 있고, 나머지 長文을 합치면 350편이 되는 셈이다. 그는 花朝月夕의 自然을 대하여 詩筆을 들어 도도한 詩興을 流麗한 筆致로 옮겼으며, 日常生活 周邊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喜悲가 교차될 때에도 서슴없이 봇을 들었던 것이다. 아울러 고유의 명절을 맞아 느끼는 바가 노래되었고, 賢官의 德을 친미했으며, 名勝地를 유람하면서 叙景詩를 창작했었다. 交遊中인 先輩, 親知, 親友에게 문안을 대신하는 글과 思親戀君과 友愛를 노래한 詩도 썼다. 平素에 交分이 두터웠던 분들이 離世하자 이들을 哀悼하는 挽章도 그의 詩文에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曹偉가 창작한 詩文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의 《文集》에 수록된 作品數와 그 형식별로 대역을 소개하면 下記와 같다.

- |              |               |
|--------------|---------------|
| (1) 五言絕句 7篇  | (6) 七言絕句 28篇  |
| (2) 五言律詩 22篇 | (7) 七言律詩 203篇 |
| (3) 五言古詩 10篇 | (8) 七言古詩 9篇   |
| (4) 六言絕句 3篇  | (9) 七言長篇 12篇  |
| (5) 六言律詩 2篇  | (10) 樂府 7篇    |

그밖에도 그가 남긴 書·序·記·跋·箋·議·啓·雜著 等 各樣의 作品들

9) 《文集》卷九, 第2張 前面 所收.

이 文集에 실려 있다.<sup>10)</sup>

한편 金竇漢이 쓴 該《文集》序에 의하면 “公의 詩稿가 被煌之後에 消失되고 나머지가 남아 전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後孫들이 엮어 편찬할 능력이 없어 현재는 약간 편만이 잔존하였다고<sup>11)</sup> 안타까워 했다. 이記事를 보면, 曹偉가 지은 詩文은 그의 文集에 수록된 것 외에도 더 散在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그의 文學遺產이 광범위함을 입증해 준다.

### 3. 萬債歌의 創作背景

朝鮮時代 初期 兩班階層이支配하던 社會는 신진세력에 속하는 15世紀의 士林派들의 진출로 말미암아 큰 진통을 겪었다. 이 가운데 士林派와 默舊派 사이의 對立은 급기야 燕山君 4年에 戊午士禍를 빚게 되었다. 이 때 수세에 몰린 金宗直과 그 門徒들은 死藥을 받거나 流配의 길을 떠났다.

曹偉도 이에 관련되어 全羅道 順天으로 流配 되었다. 여기에서 소위 流配歌辭의 嘴矢라고 指稱되는 〈萬債歌〉가 창작되었다.

그런데 朝鮮朝五百餘年の歴史中 約 1/5에 해당되는百年以上이 치열한 黨爭의 涼中에 停滯되었다고 보는데,<sup>12)</sup> 이 時代의 文學은 자연 黨爭을 題材로 한作品이 많을 것이고, 이리하여 流配文學은 形成된 것이다. 또한 이 流配文學의 内容이 豐富한 文學性을 소지하게 된原因是 流配客 المن이 지니는 독특한 心理狀態에서 作品創作의 動機를 유발시킨 데에 있다.

따라서 本 萬債歌 역시 黨爭의 結果로 胚胎된 作品이요, 특히 朝鮮朝의 政治的, 時代的 狀況에 의한 結果의 產物이기 때문에, 이러한 歷史的 背景의 理解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朝鮮朝初期 世宗이 이룩한 人材登用制度로 士大夫階層의 人物이 조정에 진출하여 政治集團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新進支配層들은 成宗朝에는 君主를 위하여 忠誠을 다했으나, 燕山君의 즉위와 함께 諸 樣相이 判異하게 나타나서 士林派와 默舊派가 격돌하게 이룬다.

아울러 遺臣으로 善山에서 후진의 教育에 전념한 吉再의 門下에서 많은 儒學者가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金宗直이 成宗의 신임을 얻어自身의 門徒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리하여 嶺南의 新進士類가 三司인 司憲府, 司諫院,

10) 《文集》卷之一 目錄欄에는 約 40面의 分量을 할애하여 詩文題目을 나열해 두고 있다. 紙面關係上 그 移記는 略하기로 한다.

11) 《文集》卷之一 戊辰秋八月 序文 第三面 參照.

12) 梁淳珌,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82, pp. 12~13.

弘文館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신진사류는 性理學을 주로 하고  
기개 嶺南에서 進出한 진보적인 취향을 가지고 節義를 重視한 반면, 默舊派  
는 보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다. 成宗朝에 柳子光이 이 계열의 金宗直에게  
미운을 받게 되었고, 金宗直의 門下에서 立身한 灌纓 金駒孫도 默舊派 李  
克墩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 불씨로 李克墩이 國是에 違背되는 佛經을  
의 우고 행사한다는 사실과 世祖妃 貞熹王后의 肅中에 全羅道觀察使로서 官妓  
를 戲弄한 일들이 春秋館의 史宦인 金駒孫에 의해서 史草에 올려진다. 이 전  
말을 확인한 李克墩이 그 기사의 삭제를 金駒孫에게 懇請했으나 文章家이며,  
節義를 生命같이 여기는 金駒孫은 一言으로 拒絕한다. 그 후 戊午士禍에서는  
被禍가 士林 以外도 數百名에 달하는 被害者가 繢出했으니 이는 燕山君昏政  
의 標本이 되는 것이다.<sup>13)</sup>

戊午士禍에 曹偉까지 그 影響이 미친 것은 金宗直과는 각별한 關係에 있  
었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曹偉와 金宗直은 妻男과 姉兄間이고, 또 師弟의 情誼도 뜬독했으며 나아  
가 明京에 聖節使의 任務를 수행하기 위해서 遠行했을 때에도 항상 佔畢齋  
文集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므로 이 戊午士禍의 慘禍에 면죄될 리 만무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権臣 李克均은 曹偉가 前王 成宗의 寵臣이라는 美名을  
달아서 儉救에 앞장을 섰기에 流配刑으로만 마무리된 셈이다. 曹偉의 流配  
歌辭 萬憤歌는 上記한 歷史的인 背景下에서, 그가 流配地로 떠나고 그 곳에  
서 한많은 苦을 營爲하면서 自己의 역울하고 담담함과 임금을 그리는 心緒  
를 그의 流麗한 文章으로 구사하여 吐露한 것이다.

#### 4. 作品의 檢討

##### 4.1. 作品構成

流配歌辭를 創作한 作家들은 流配의 動機 및 體驗, 懷抱, 心緒 等을 言語  
로써 具體化시켜 一群의 文學作品을 胚胎시켰다. 이는 流配된 狀況에서 그  
들의 實存的 生의 慾望이 하나의 詩歌形態로 表현된 것이다. 아울러 自身을  
인식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데서 基因한 것이다.

13) 戊午士禍에 대해서는 下記 論著를 參照함.

民族文化推進會 編, 國譯《燃藜室記述》II, 1966, pp. 109~120.

震擅學會, 《韓國史》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pp. 536~540.

姜周鎮, 《李朝黨爭史研究》, 서울大出版部, 1971, pp. 43~46.

本稿의 대상인 萬憤歌도 이와 同軌인데, 戊午土禍로 인해서 現實舞臺에서 放逐된 作家 梅溪 曹偉가 그의 悲憤慷慨한 心情을 읊어낸 朝鮮朝 初期인 16세紀에 창작된 流配歌辭에 속한다.<sup>14)</sup>

筆者は《雜同散異》에 실린 歌辭 原文을 熟讀하고서, 그 全文을 下記와 같이 ①에서 ⑧까지의 9段落으로 區分하였다.<sup>15)</sup>

①行~10行. (天上 白玉京~쓸카시 스로리라)

본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원분이기에 자신을 억만 번이라도 변화시켜서 玉皇 香案前에 가서 眇尺에 앓아서 자신의 가슴에 쌓인 말들을 토로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께 향한 衷情이 사무치게 그려진 부분이다.

天上 白玉京	十二樓 어듸매오
五色雲 김픈 곳의	紫清殿이 모여지니
天門 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초라리 씩여지여	億萬번 變化하여
南山 늦준 봄의	杜鵑의 녀시 되여
梨花가다 우희	밤낮을 못 울거든
三清洞裡의	점은 한낱 구름 되여
眞람의 흘리 누라	紫微宮의 누라 올라
玉皇 香案前의	眇尺의 나아 암자
胸中의 싸한 말숨	쓸카시 스로리라

이 ①部分은 萬憤歌의 序詞인데, 作家가 流配刑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서 王君과 멀리 떨어져 있는立場에 놓이고, 이에 자신의 홍중에 쌓인 말을 실컷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0行 前句 <胸中의 싸한 말숨>의具體化가 다음에 이어질 本詞의 內容이 된다.

② 11行~18行. (어와, 이 내 몸이~꿈이조차 향기롭다)

流配生活中 白鷗와 더불어 벗이 되었지만 돌아갈 길이 꿈만 같다는 것이다. 本 ②은 流配地에서의 生活 10餘年에도 作家가 還故鄉할 수 없음을 自嘆한 部分이다.

14) 李相寶, 註(2)의 冊 p.70 參照。

15) 原文의 解讀에는 註(2)에 紹介한 李家源論文을 參照하였고,各行의 區分은 다음의 李相寶說을 따랐다. 李相寶, 《韓國歌辭選集》, 集文堂, 1979, pp.59~65.

이와, 이 내 봄이	天地間의 브자 나니
黃河水 물다만는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마이 업고	賈太傅의 넉시련가
한숨은 무스 일고	荆江은 故鄉이라
十年을 流落하니	白鷗와 비디 되여
홈에 들자 흐엇더니	어루는 듯 꾀는 듯
님의 업슨 님을 만나	金華省 白玉堂의
봄이조차 향괴롭다	

② 19行~30行. (五色설 나음 절너~하늘 쌔흘 모를노다)

內容은 作家가 流配地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크나큰 報恩을 그리며, 그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五色설 나음 절너	님의 옷슬 못 흐야도
바다 마튼 님의 恩을	秋毫나 감프리라
白玉마튼 이 내 민음	님 위호여 직희더니
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日暮修竹의	翠袖도 冷薄흘샤
幽蘭을 것거 쬐고	님 겨신 티 보라보니
弱水 마리진 티	구름 길이 미흐려라
다 서근 톱의 얼굴	첫맛도 채 몰나서
憔悴흔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려친자
千層浪 흔가온대	百尺竿의 올나더니
無端흔 羊角風이	宦海中의 닉러나니
億萬丈 소희 빼져	하늘 쌔흘 모를노다

③ 31行~44行. (魯나라 흐린 술회~水火를 뜻토다)

作家가 自身은 流配生活을 하는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朝政大事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의 불행을 슬퍼한 내용이다.

魯나라 흐린 술회	邯鄲이 무습 罪며
秦人이 醉흔 蔽의	越人이 무음 탓고
城門 모던 불의	玉石이 흄에 드니
뜰 암회 심은 蘭이	半이나 이우래파
梧桐 견은 비의	오기력기 우러렐체

關山萬里 길이	눈의 암암 불피는 들판
青蓮詩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솟쳐 보니
華山의 우는 새야	離別도 괴로워라
望夫山前의	夕陽이 거의로다
기도로고 떠나다가	眼力이 罷듯던가
落花 말이 엎고	碧窓이 어두브니
입 노른 삿기 새들	어이도 그리 진자
八月秋風이	넋짐을 거두브니
빈 긴의 쌓인 알히	水火를 못 면토다

◎ 45行~58行. (生離死別을 ~늘 위호여 적시는고)

임금과의 離別이 한탄스러우며 혹시나 解配의 恩澤이 내리지나 않을까 하는 作家의 기대가 나타난 내용이다.

生離死別을	흔 몸의 혼자 맛다
三千丈 白髮이	一夜의 기도 길사
風波의 현 빙 들판	험비 노던 저뉴덜아
江天 지는 희의	舟楫이나 無恙호가
밀거나 혀거니	灘瀕堆를 겨요 디나
萬里鵬程을	멀니곰 견주더니
먼 람의 다브치여	黑龍江의 써러진 들판
天地 마이 엎고	魚雁이 無情호니
玉 마든 面目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梅花나 보내고저	譯路를 부라보니
玉櫻明月을	너보던 뉴비친 들판
陽春을 연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마차
碧海 너본 마의	넉시조차 훋터지니
내의 긴 소매를	늘 위호여 적시는고

◎ 59行~74行. (太上 칠위분이 ~하늘을 원망하고)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流配 오기 전의 옛일은 꿈만 같다고 여겼다. 또한 자신은 生死를 하늘에다 맡기고 諦念하며 살아가겠다고 노래했다.

太上 칠위분이	玉眞君子 命이시니
天上 南樓의	笙笛을 울니시며
地下 北風의	死命을 벗기실가

죽기도 命이요	살기도 하누리니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허니
繆叔非罪를	君子인들 어이 혼니
五月飛霜이	눈물로 어찌는 듯
三年大旱도	冤氣로 너희도다
楚囚南冠이	古今의 혼들이며
白髮黃裳의	서론 일도 하고 만타
乾坤이 痘이 드려	混沌이 죽근 後의
하늘 이 沈吟한 듯	貫索星이 비취는 듯
孤情依國의	冤債만 싸혔시니
추우리 睹馬마치	눈 끔고 지내고져
蒼蒼漠漠하야	못 미들은 造化일다
이려나 져려나	하늘을 원망흘가

◎ 75行~85行. (盜跖도 성히 놀고~鬼蜮의 淵藪련다)

作家는 矛盾된 朝廷의 처사가 안타까웠고 奸臣의 妄言에 귀를 돌리는 임금이 원망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임금께 향한 一片丹心은 변함 없다고 하였다.

盜跖도 성히 놀고	伯夷도 餓死호니
東陵이 놉픈 작가	首陽이 누준 작가
南華 삼십편의	議論도 하도 할사
南柯의 디난 꿈을	성작거든 술모어라
故國松楸를	꿈의 가 묻쳐 보고
先人 丘墓를	신 後의 성작호니
九回肝腸이	꿈의 굽의 그쳐세라
漳海陰雲의	白晝의 훗터디니
湖南 어느 고디	鬼蜮의 淵藪련다

◎ 84行~101行. (魑魅魍魎이~玉皇上帝 處分일다)

作家는 自身이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의 命이요, 임금의 뜻이라, 여겨지나, 못내 자신의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임금이 원망스럽다고 표현하였다.

魑魅魍魎이	쓸거더 저준 마의
白玉은 므스 일로	青蠅의 깃시 되고

北風의 혼자 서서	마 입시 우는 뜻을
하를 마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출피시니
木蘭秋菊에	香氣로운 타시련가
婕好昭君이	薄命hon 몸이련가
君恩이 끌이 되여	흉너가도 자취 업고
玉顏이 쇳이로되	눈를 마려 못 볼로다
이 몸이 녹가져도	玉皇上帝 處分이요
이 몸이 죽여져도	玉皇上帝 處分이라
노가디고 죽어지여	魂魄조차 훗터지고
空山 櫛體마치	님자 업시 구나다가
崑崙山 第一峯의	萬丈松이 되여 이셔
怨람비 쁘린 소리	님의 귀에 들니기나
輪回 萬劫호여	金剛山 鶴이 되여
一萬 二千峯의	모음과 소사 올나
마을 둘 불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라
님의 귀의 들니기도	玉皇上帝 處分일다

上記分類 ⑤에서 ⑥까지는 本 內容에서 本詞에 該當한다. 여기서 作家는 土禍로 인해서 過去의 榮華는 가셔지고 現在는 억울하고 비참한 流配生活을 하게 되었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오직 上帝의 처분으로 解配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다.

⑥ 102行~124行. (恨이 爛희되고~萬世相感 호리라)

⑥ 結詞에서의 內容은 作家自身의 潔白한 마음을 알아 주는 이가 있다면 오랫동안 그와 交遊하고 相感할 것이라고 노래한 것이다.

혼(恨)이 爛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
님의 집 창 뱃과	외나모 梅花 되여
雪中의 혼자 피여	枕邊의 이위는 듯
月中疎影이	님의 옷의 빗춰어든
어엿쁜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東風이 有情호여	暗香을 불어 올려
高潔호 이 내 성계	竹林의 나 부치고쳐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빗물 혼자 씌워
白溝 전네 저어	乾德宮의 가고지고
그려도 혼 모음은	魏闕의 달녀 이셔

니 무든 누역 속의	님 향흔 씀을 써여
一片 長安을	日下의 보라보고
외오 굿겨 읊히 굿겨	이 봄의 타설년가
이 봄이 전혀 몰라	天道 漢漠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업다	伏羲氏 六十四卦
天地萬物 상진 뜻을	周公을 씀의 뵈와
즈시이 웃깝고저	하늘이 놓고 놓하
말 업시 놈흔 뜻을	구름 우희 누는 새야
네 아니 아듯더냐	이와 이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여	어듸 어듸 사혀시며
비 되고 물이 되여	어듸 어듸 우려 넬고
아모나 이 내 뜻	알 니 꽃 이시면
百歲交遊	萬世相感 흐리라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萬憤歌〉는 内容에 따라 크게 序詞·本詞·結詞의 3個 段落으로 區分할 수 있었다. 즉 1行에서 10行까지를 序詞, 11行부터 101行까지를 本詞로, 102行부터 124行까지는 結詞로 大別된다.

#### 4.2. 作品內容

歌辭는 하나의 作品일지라도 그 속에는 多樣한 意味의 内容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든 문학장르에 内在된 공통적인 특징이겠으나, 小說·戲曲 등과 같이 長篇이 아닌 歌辭에서도 그主流의 内容에 根幹을 두고 内容을 명확하게 규명지워야 한다.

그러므로 作品에 나타난 주된 内容을 考察함으로써 流配者인 作家의 意識構造는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며, 萬憤歌에 내포된 思想性도 파악되게 될 것이다.

流配歌辭의 内容들을 그 類型別로 分類해 본 작업은 先學들에 의해서 수차 시도되어 왔는데,<sup>16)</sup> 本項에서는 이러한 업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4.2.1. 憂時戀君

流配歌辭는 思美人의 歌辭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戀君에의 衷

16) 李泰極, 〈歌辭의 内容考〉,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新雅社, 1964.

情이 切切하게 표현되었다.<sup>17)</sup>

黨爭에 關與한 流配者들은 비록 流配의 不運을 당할 망정 그 어느 누구보다도 忠念愛君의 忠誠을 表現하였다. 아무리 君主의 미움을 사서排斥되어 流配당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政敵이나 奸臣輩의 모함이요 장난으로 王寵을 흐리게 한 것이다. 여기서 流配地에서 변함 없이 褒時憂國하고 戀君丹忠하는 衷情을 謳歌하여 疏遠해진 聖寵을 회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萬憤歌도 이러한 내용이 많은데 그 具體的表現句節을 引用해 보면 下記와 같다.

五色질 니음 결녀	님의 옷슬 뜻 헤야도
바다 막튼 님의 恩을	秋毫나 갑프리라
白玉マ튼 이 내 恩을	님 위호여 직회더니
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셋거치니
日暮修竹의	翠袖도 冷薄홍사

前記의 作品構成에서 ④에 보인 19行에서 23行을 紹介한 것이다. 이러한 褒時戀君의 作品은 君王을 思慕하고 國事를 염려하며 忠誠을 서약한 것을 主題로 한 것이다.

儒教의 實踐道德에 있어서 根幹이 되는 것은 三綱과 五倫으로 이는 人間이 지켜야 할 道理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다. 朝鮮朝 儒教社會에서는 이 五倫 가운데 특히 忠義思想을 가장 重視하였으니, 이 忠義思想을 主題로 하여 이루어진 作品이 褒時戀君의 詩歌類인데 萬憤歌도 여기에 속한다.

上記 例文에 提示한 것처럼 님을 君王에 비유한 思美人的 表現句節은 中國楚辭에 그 淵源을 두고 있다.<sup>18)</sup>

즉 流配地에 있기 때문에 思慕하는 君王에게 衷情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술퍼했고, 自身이 變節해서 俗人을 따를 수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잠시 自適해自身의 마음을 달래려고 風物을 詠美하여 草香의 아름다움에 自身의 清節을 비겨서 自肯했다. 반드시自身의 忠義가 君王에게 알려질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바른 길을 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君主께 向한 一片丹心이야 말로 어떤 逆境에서도 변함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儒家의 傳統思想인 것이다.

이 思美人的 歌辭는 本 萬憤歌를 爲始하여 鄭澈의 思美人曲·續美人曲 等

17) 李相寶, 外《國文學概論》, 教學研究社, 1986, pp. 172~173 參照。

18) 星川清孝, 《楚辭の研究》, 養德社, 1961, p. 364 參照。

의 兩辭를 거쳐 金春澤의 創作 別思美人曲과 李真儒의 繢思美人曲에 그 脈이 닿는다. 또 이 憂時戀君의 作品은 曹友仁의 自悼詞 宋疇錫의 北關曲, 李邦翼의 鴻罹歌, 安肇源의 萬言詞, 金鎮衡의 北遷歌 等과도 同軌에 놓인다.

다음으로 表現濃度差는 있겠으나, 第11行에서 第13行에 보인 <어화, 이내  
물이 天地間의 느처나니 黃河水 물다만는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マ이업고  
賈太傅의 墙시련가>의 句節에서도 曹偉는 君主를 天上白玉京에 계신다는 것  
으로 話頭를 설정하고, 自身은 그 곳을 떠나 遠地에서 君主를 그리워하는 간  
절한 마음을 나타낸 뒤 스스로를 屈原이나 賈誼에 比喻하였다. 아울러 流配客의  
쓰라린 懷抱와 君主에 대한 끝없는 忠誠을 절실하게 나타내어 後日 流  
配歌辭의 좋은 標本이 되었다.

曹偉는 流配地에서 屈原의 楚辭를 불철주야로 聽讀했다고 하는데<sup>19)</sup> 이례  
한 것은 士禍에 連累되어 그 自身의 富貴榮華가 전락되고, 역울한 流配生活  
의 苦楚가 닥쳐서 遊離의 처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楚客의 後身이 되기를  
念願한 데에 그 까닭이 있다. <傷心도 マ이업고~十年을 流落하니>라고 표  
현한 그의 心緒는 屈原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萬憤歌의 内容에  
서 憂時戀君이 主調를 形成한 바는 朝鮮朝 流配歌辭의 一貫된 特徵이며, 作家들은  
流配地에서도 君王에 대한 衰情의 不變을 노래하는 해바라기 性向의  
態度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이 朝鮮 初期 詩歌文學에서는 忠君愛國이 상당히 편재하여 이 方面  
의 創作物이 文學圈의 主導的 역할을 했었다.<sup>20)</sup> 더구나 우리말로 표현된 詩  
歌에서는 그러한 傾向은 具體的인 樣相을 나타냈는데, <亦君恩이 샀다>는 句  
節을 使用한 作品이 그 實例에 해당이 된다. 그들 作家들은 <밥 한번 먹을  
때도 君主를 잊지 않으므로 그 마음을 삼아> 詩歌作品을 創作했다고 하겠다.  
이 愛國憂國至誠의 表現은 朝鮮朝 初期 詩歌에 自然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  
니라, 口頭禪의 으로 나타나 말 끝마다 聖恩을 云云하는 느낌을 주었으나, 이  
런 思考方式은 이 當時 詩歌文學을 點綴한 하나의 凝結體가 되었던 것이다.

#### 4. 2. 2. 含憤告祝

流配歌辭의 각 구절에는 哀訴와 諦念, 本項의 핵심인 자신의 潔白을 주장  
한 身上歌의 内容이 보이는데, 이것은 流配文學의 思想的인主流를 形成하

19) 《文集》卷之五, 〈讀書堂記〉参照。

20) 鄭尚均, 《韓國中世詩文學史研究》, 韓信文化社, 1986, p. 192 參照。

는 要因이기도 하다.<sup>21)</sup> 많은 流配客들은 自身이 奸臣이나 政敵의 猜忌의 嫉妬를 받아 억울하게 流配를 당한 것이라고 의식하였다. 그리하여 該 流配地에서 文學作品을 통해서自身의 無罪를 君主께 哀訴하거나 潔白을 내세워自身의 身上을 自歎한 것인데, 本項을 設定한 緣由는 萬憤歌에서도 이러한 内容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本項에 該當되는 적절한 句節을 抽出해서 檢討한다.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하니  
繅綯非罪를 君子인들 어이 하니

上記 引用句는 本詞에 해당되는 第63行~64行에 보인다. 曹偉가自身이 創作한 歌辭를 萬憤歌라고 命名하여 歌題에서도 明示해 두었듯이 作品全體에서는自身의 潔白을 애소한 부분이 많다. 여기서 天上白玉京은 서울이고 玉皇上帝은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놓고서自身의 流配動機가自身의 허물과는 무관하고 부당한 것임을 古典에 보이는 故事를 引取하여 說得力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序詞에서부터 作家는 흥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호소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도 本歌辭의 創作動機와 結付된 것이고,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表白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作家自身의 주장을 萬憤歌에서는 他 流配歌辭의 境遇처럼 象徵의 수법을 구사하여 표현하였다.

즉, 曹偉는自身의 潔白을 上記 引用句에 보인 바와 같이 故story를 引取하여 노래했다.

上記 引用句에서 <죄인처럼 朴였으나 죄가 없다>고 한 <繩綯非罪>란 부분은 《論語》에 <雖在繩綯之中 非其罪也>란 구절에서 引用한 것이다.

作家曹偉를 抑鬱하게 流配당하게 한 戊午土禍는 柳子光, 李克墩 等이 燕山主를 종용하여 야기시킨 것으로 그 결과 佔畢齋 金宗直系의 文人, 學者들이 誅殺 또는 流配된 일이다. 이 土禍는 단순히 私嫌에서 시작된 것이며, 문제가 된 吊義帝文은 金宗直이 지은 글인데, 柳子光이 이것을 교묘하게 句解를 첨부하여 燕山主에게 上啓한 것이다.

따라서 作家는自身이 이 土禍와 관련된 바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점을 위고사를 引用하여 표출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本項 舍憤告祝에 해당이 된다.

21) 梁淳璣, 註(12)의 論文 p. 44 參照.

다음으로 또 한 句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下記의 第71行에서 第74行까지의 表現을 引用한다.

孤情依國의 宽憤만 싸햇시니  
 ㅊ라리 瞎馬마치 눈 끔고 지내고자  
 蒼蒼漠漠하야 못 미들슨 造化일다  
 이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흘가

이 恨辭는 어휘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의 恨이다. 自身의 결백과 이어져서 憎憤만이 가슴에 쌓이고 그것이 굽기야는 더할 수 없는 恨으로 나타고 있다. 또 作家는 《晉書》의 〈盲人騎瞎馬〉을 생각하여自身이 차라리 애구눈의 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역시 君主에 대한 恨辭는 아주 미온적으로 하늘에 비껴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作家의 舍憤告祝의 心情은 後代의 〈別思美人曲〉의 一句와 相通하는데 즉, 〈조물 죄고 흔한 귀신이 희즈온가 닉팔조 그만한니 시름을 원망흘가 내몸의 저은죄를 모른니 죄더죄라〉<sup>22)</sup>란 표현이 거기에 해당한다. 作家自身은 潔白하므로, 만약 나에게 罪가 있다면 무슨 죄인지조차 모른다는 그 자체가 죄인지도 모른다고 하여 원망을 토로했고 자신의 결백을 은연중에 표출하였다.

#### 4. 2. 3. 解配還鄉

本項은 作家自身이 하루 바삐 解配되어 故鄉으로 돌아가 남은生涯를 마치고 싶다는 解配를<sup>23)</sup> 主題로 한 내용이다.

流配地로 放逐되어 作家를 遊離되게 만든 束縛의 태두리는 그곳 眼前에 전개된 山川大海인 것이다. 流配地에서 故鄉便을 바라보니 高山峻嶺은 높고 험하며 前路는 千萬畝으로 가리웠다. 이 高山峻嶺, 山川大海는 恨과 슬픔을 안고서 生活하는 流配客에게는 萬端의 情念을 자아낸다. 作家는 流配의 身勢에 있으면서도 虛想의 날개는 항상 故鄉으로 向했다. 또 人跡이 杜絕된 窮荒絕漠을 徘徊하면서 그의 思鄉歸心은 깊어졌다,自身이 圍困의 處地가 된 現實을 切感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本 萬憤歌의 各句를 檢討해 보면 이러한 作家의 心情이 如實히 나타나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⑦ 幽蘭을 것거 쥐고

渴水 마리진 티

님 계신 티 봉라보니

구름 길이 머흐려라

(第24. 25行)

22) 金峰澤, 〈別思美人曲〉, 第3段 參照.

23) 秦東赫, 《李世輔時調研究》, 集文堂, 1983, p. 172 參照.

⑤ 楠桐 점은 비의 關山萬里길이	오기 럭기 우러엘제 눈의 암암 불피는 들큰	(第35. 36行)
⑥ 輪回 萬劫호여 一萬 二千峯의	金剛山 鶴이 되여 모음고 소사 올나	(第98. 99行)
⑦ 말 업시 놉흔 뜻을 네 아니 아듯더냐	구름 우회 누는 새야 이와 이 내 가슴	(第119. 120行)

一般的으로抽出된流配詩歌의內容이 되는句節들은冀解配, 孤獨, 待消息, 悔恨, 思親, 鄕愁, 思友, 忠君, 不忠不孝, 脱俗을 노래한 것이<sup>24)</sup> 있다.

上記한例文 ⑦은鄉愁에 젖은懷抱를 읊었다.作家가生活하고 있는流配地에서는遊離의 테두리인險路, 大山이位置해 있고故鄉으로가는길은폐색되어 있어서鄉愁에 젖은시름은그치지아니하여流配地를둘러싼구름마저도험하게느꼈다.또한雲霧마저作家의心緒를풀어주지아니한다고탄식한내용이上記例 ⑦인것이다.

⑤은待消息과孤獨을노래했다.오동잎에비가떨어지고,기려기는울고가는데愁懷는萬端하여꿈에서조차故鄉消息,大闕期別을기다리지마는漢陽까지의路程이멀어서消息이頓絕한것인가?作家의心中에는漢陽千里가눈에삼삼하고,그곳에서의消息이듣고싶어서鶴首苦待한다.

⑥의引用句는脫俗의心懷를읊었다.作家는羽化而登仙하여是非榮辱의俗世,宦海를超脫하여값없고임자없는江山風月을마음껏만끽하여즐겨보고자하는脫俗의淡淡을상상해본것이다.그래서作家는俗世를超脫하여神仙이되어無我之境에이르고자하는道敎의心象에바탕을둔句節을읊었다.이것은곧解配되어還故鄉이되는宦海에나아가는첩경이라고느꼈다.

⑦은忠君의內容에해당된다.作家는潔白한몸인데自身의역울함을알아줄분은漢陽의君主이기에流配地에서하늘을나르는새에의탁하여그心境을노래했다.君主의河海度量은오직漢陽으로마음대로날아갈수있는새,너만은알고있을것이라고상상의날개를펼쳐본것이다.

#### 4.2.4. 泣訴感泣

本項은作家曹偉가泣訴하면서,自身을楚客屈原에견주고流配客의처지이면서도君王의聖恩에感泣하였으며,나아가관대한處分단을기원한것

24) 秦東赫, 앞의冊, pp. 166~193 參照.

에 해당이 된다.

이처럼 萬憤歌에서는 本項에 속하는 句節들에서 曹偉 스스로가 楚國의 流配客 屈原과 賈誼에 견주어 誣告罪로 流配 온 自己의 슬픈 運命을 읊었기 때문에, 자연히 上記의 楚辭에서의 援用部分이 보인다. 曹偉는 流配地에서 주야로 楚辭를 暗誦한 가운데 특히 〈離騷經〉, 〈九歌〉, 〈天問〉, 〈九章〉 등은 自身의 心情과 통했기에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먼저 萬憤歌에 영향을 준 〈離騷經〉은 屈原이 斬尙의 謀陷으로 懷王에게 追放을 당하자, 自身의 憂愁幽思를 372句로 전개시켜 놓은 作品이다. 이에 대한 後學 王逸의 解說文을 下記에 引用한다.

離騷經者 屈原之所作也 屈原與楚同姓 仕於懷王 爲三閭大夫(中略) 同列大夫 上官斬尙 嫉害其能 共譖毀之 王乃疏屈原 屈原執履忠貞 而被讒邪 憂心煩亂 不知所憩 乃作離騷經 離別也 驚愁也 經徑也 言已放逐離別 中心愁思 猶依道經 以風諫君也…<sup>25)</sup>

또한 〈九歌〉도 屈原의 所作인데, 鬼神을 섬기며 경건해야 함을 말하고 自身의 審憤을 의탁하여 諷諫한 内容이다.

〈天問〉은 180餘句로 構成되었는데, 그 内容은 宇宙의 真理와 說話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하늘에 물은 것이니, 그가 放逐되어 슬픈 뜻을 품고 山澤을 방황하면서 仰天歎息한 노래이다.

그리고, 〈九章〉은 懷王이 돌아가자 屈原이 襄王에게 다시 쓰임을 받았으나, 또 참소를 당해서 〈九章〉으로써 諷諫하기 위하여 下記의 動機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었다.

至于襄王復用 謗言逐屈原 在野又作 九章 賦以諷諫 卒不見納 不忍濁世自投汨羅…  
...<sup>26)</sup>

이같은 屈原의 作品과 萬憤歌를 對比해 보면, 먼저 아래의 萬憤歌 第9行 第10行인

玉皇 香案前의 烟尺의 나아 암자 胸中の 싸한 말숨 쓸까지 스로리라

는 〈離騷經中〉의 〈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旣得此中正〉에서 引取하였다. 그리고 第3行 後句의 〈꿈이라도 갈동말동〉은 〈九章〉의 〈昔予夢登天兮 魂中道而

25) 《楚辭》卷1, 〈離騷經〉章句 第1·2張, 中華書局刊本, 1955.

그리고 屈原의 文學世界에 대한 理解는 다음 著書가 많은 參照가 되었다.

河正玉 編著, 《屈原》, 中國古典漢詩人選 五, 太宗出版社, 1980.

26) 앞의 冊, 〈離騷贊序〉.

無杭」의 奪胎이 겼으며,

이어서 第3行 前句인 「天文 九萬里를」는 〈天問〉에 보이는 「增城九重 其高幾里」를 換骨한 것으로 보겠다.

위에서 上記 對比를 통해서 간략이 言及한 것처럼 屈原은 〈離騷經〉, 〈九歌〉, 〈天問〉, 〈九章〉을 通해서 自身의 참소당함을 君主께 하소연했고, 그의 원분을 풀고자 했으며, 은연중 君主의 관대한 처분을 기원하였는데, 本萬憤歌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이와 同軌에 속한다. 즉 曹偉는 萬憤歌 第19行과 第20行에서

五色설 니음 절여 님의 웃을 뜻 乎이도  
바다 막튼 님의 恩을 秋毫나 감프리라

라고 노래하며 聖恩에 感泣하였고, 第 62·87行도,

죽기도 命이요 살기도 하누티니  
하를 막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슬퍼시니

라 하여 自身의 心緒를 풀어 해쳤다.

#### 4.3. 作品構造

歌辭의 形式을 4·4調의 連續體라고 規定한 陶南의 先見<sup>o) 27)</sup> 있던 후로 後學들이 의하여 많은 論議가 提起되었다.

그러나, 가장一般的인 見解는 歌辭는 3·4調 또는 4·4調의 連疊形式으로 이루어진 長型詩로 內·外 2句가 모여 基本的으로 3. 4. 3. 4 혹은 4. 4. 4. 4의 字數律을 가지고 1行을 이루어, 1行은 4音步格인데 行數에는 制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原則를 갖고서 萬憤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萬憤歌는 總 124行 247句로 全行이 四音步格으로 되어 있으나, 第12行에서 第13行으로 전개되는 部分에서 下記 例처럼 外句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바뀐다.

어와, 이 내 둘이	天地間의 느져 나니	(제11행)
黄河水 불다만는	楚客의 後身인가	(제12행)
傷心도 마이 업고	賈太傅의 女시련가	(제13행)
한숨은 무스 일고	荆江은 故鄉이라	(제14행)

27) 趙潤濟, 《朝鮮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p. 124 參照.

## 十年을 流落한니

그래서 제12행은 単句로 보아야 하며, 〔楚客의 後身인가 傷心도 끄이업고〕를 제13행으로 처리해야 하겠고, 제13행은 결국 二音步格이 되는 셈이다.

한편 字數律은 2.2字 1句, 2.3字 25句, 2.4字 23句, 3.3字 4句, 3.4字 131句, 4.3字 2句, 4.4字 61句로 되어 있다. 3.4字와 4.4字가 주를 이루며 3.4字가 全句의 半을 넘고 있다. 그리고 末行인 〈百歲交遊 萬世相感 허리라〉는 時調의 終章 落句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末行 124行이 바로 前行 123行 〈아모나 이내뜻 알니곳 이시면〉과 內容의 으로 對가 되어서 긴밀히 연결되고 獨立의 으로 落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

위의 검토를 통해서 볼 때에 萬憤歌는 3.4調 또는 4.4調의 字數律을 主調로 하고 있어서 餘他의 歌辭와 相異點은 없지만, 위에서 간략히 지적한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萬憤歌는 句節量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 기준인 80行 160句가 넘기 때문에 長型歌辭에 속한다.

위와 같은 作品構成의 形式으로 볼 때에 萬憤歌는 兩班歌辭에 해당한다. 典型的인 性格의 歌辭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行의 字數가 3·4, 3·4調로 연속된다.

萬憤歌는 士禍에 몰린 黨爭의 罷害자로 朝鮮朝 作家群中 正統의 兩班層作家에 의해 형성화된 作品이다. 즉 貴族의 氣品과 優雅를 作品에 담아서 感情表現을 유연하게 때로는 감정을 절제한 心緒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양반층의 가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萬憤歌가 典型的인 兩班歌辭의 代表라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作家 曹偉가 社會的, 身分的 位置가 양반에 속한다는 증거가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아울러 形式에 있어서도 正格歌辭인 3.4.3.4의 律格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그러면, 具體的으로 그 表現技法과 文章의 特色를 살펴보고자 한다. 作品의 主된 技法은 對句形式으로 構成되었다. 아울러 中國故事를 引用하여 隱喻의 象徵性을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즉 〈楚客의 後身인가~한숨은 무스일고〉(12~14행)에서는 서로 對를 이루고 있고, 〈天上南樓의 ~死命을 벗기실가〉(60~61행)에서도 마찬가지로 對를

28) 李相寶, 註(2)冊 p. 17 參照.

이루어 문장의 문위기를 차분히 가라 앓혀 준다.

中國의 故事나 熟語를 이용한 表現으로는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 면하니~白髮黃裳의 서문 일도 하고 만다〉(63~68행)의 경우인데 中國詩歌의 영향이라고 본다. 이 故事의 빈번한 引用은 文章表現의 완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제19행~27행은 流配地에서 君主에 대한 向念의 결실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차라리 賤人의 우아함을 느끼게 함을 표현하였다. 나아가 내용에서도 간절한 호소와 살뜰한 마음의 표현과 달랠 길 없는 그리움으로 원한보다는 낭만적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作品 萬憤歌는 朝鮮朝 兩班社會의 眞面目인 流配生活을 表現하였고, 外的 으로나 內的으로 典型的인 兩班歌辭의 性格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기에, 該作品은 典型的인 兩班歌辭의 '嚆矢格'에 해당된다.

### 5. 作家意識의 究明

萬憤歌에 나타난 作家意識은 一言하여 강한 現實에의 執着 속에서 응결된 心理的 狀態의 表현으로써, 삶과 죽음을 모두 하늘에 맡기고 스스로 諦念하는 宿命論의 結辭로 終結되는 것이 그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流配歌辭란 朝鮮朝 政治的·學問의 特殊狀況에서 시작된 黨爭으로 야기된 文學作品이다. 그래서 本 萬憤歌도 政界一線과 官職에서 밀려나 遊離·流配된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상태는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였을 것이다. 또한 作家는 流配地에서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과 자기상실감을 극복하려 무던히도 애썼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갖고서 이겨내기 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으며, 오히려 체념하려고 했다. 그리고 作家는 流配란 現實을 現實이 아닌 다른 天上·天下 世界로 생각하려고 하였다. 즉 작품에서 꿈이나 상상의 세계로 허구화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경험의 허구화가 작가의 의식체계를 통해서 萬憤歌에서는 결실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시간적 대립과 공간적 대립이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天上과 地上의 世界를 過去와 現在의 世界로 보았으며, 前者를 不變의이고 後者를 可變의 세계로 대응시켰다. 이는 현실세계를 현상 그대로 파악할 뿐 世界와 自身을 연결시켜 보다 나은 세계로 승화시키려 했으나 결국 승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것이 위축됨으로써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人間의 真實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못하고 있다. 결국 文學이 그 文學性을 갖기 위하여는 단

순한 眞理의 전달이 아니라 作家의 實存性을 형상화해야만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인간의 생애에서 運命的 슬픔과 恨을 그리고 절망감을 극복하려는 현실의 필연적 자기구원이 나타나야만 했었다. 또 運命은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 긴장처리의 보편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다. 流配刑은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에 한계적인 상황이 통념화된 사회의 권위주의적 윤리에 뿐만 박고 있는 것이고, 이로써 작가는 답답하게 현실을 수용하면서 政敵의 모함이나 미움에 대한 항변조차 할 수 없었던 체념적이고 자학적인 인생관이 형성되겠 꿈 될 것이다.

上述한 流配文學에 나타난 作家의 一般的인 意識世界에 대하여,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究明해 보기로 한다.

朝鮮時代 士大夫들의 가장 쓰라린 生活感情은 官吏이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流配와 그의 산출인 流配文學을 통해서 表白되었으나 그 내용은 流配地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孤獨感 속에서도 向上一片丹心의 그것이었다. 이는 不變이어서 한결같이 忠臣戀君之詞의 性格을 지닌다. 이 流配歌辭는 作家의 敗北意識과 挫折感이 全篇에 넘쳐 있기 때문에 泣訴·哀怨·傷心 等이 그 主詞를 이루지만 諦念이나 絶望을 극복하고 다시 임금께 나아가려는 意志力이 雪운처럼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다.<sup>29)</sup> 여기서는 自我의 구원이 절대자의 전제적인 은총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표현해 주고 있다. 이는 前記 한 바와 같이 체질적으로 운명론자이면서 회의적인 작품 萬憤歌에서도 如實히 나타나 있다. 즉 萬憤歌에서는 離別의 罚로움, 君主에의 그리움, 政敵에 대한 원망,自身의 潔白에 대한 하소연, 벼슬길의 혐난함, 운명론적 자위들이 반복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萬憤歌에서는 作家의 現實에 대한 意識은 다분히 流配란 상황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君主을 향한 그리움과 恨을 儒教의, 道教의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세밀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sup>30)</sup> 하지만 流配의 경위나 流配地에서의 생활상은 극히 추상적으로 용해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萬憤歌의 宿命意識의 세계는 流配歌辭 전편에 걸쳐 逃避,合理화의 소산으로 치리될 수 있다.<sup>30)</sup>

이는 내면적으로 발휘된 그리움의 정서가 체념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나

29) 安廷煥, 「謫所歌辭 研究」, 仁荷大碩士學位論文, 1981, pp. 14~19 參照。

30) 崔五圭, 「流配歌辭에 나타난 意味表象의 深層構造分析」, 《國際語文》第一輯, 1979, pp. 47~50 參照。

타나고, 혹은 君主와의 이별상태를 의식하고자 노력하는, 流配된 동기를 마음 속에서 구체화시키며, 언어를 통해서 작가의 세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作家는 忠誠스러운 신하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 없음을 노래한 동시에 자기 신세의 한탄을 읊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恨歎을 통해서 극복하는 어떤 의지나 힘을 보이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주어진 의견을 피동적으로 적용시킨 작가 曹偉의 소극적인 한계성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조류가 君主에게만 그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인정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작가는 유배당한 상황이면서 그 流配에 대하여 潔白을 주장했고 현실의 암담함과 政敵에 대한 抗辯에 대해서도 항변하는 것은 임금의 寵愛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었다. 하소연할 길 없는 絶望的인 現實을 인식하되 다만 거기에 머무를 뿐 이를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즉 본질적인 자기구원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회의적인 도교적인 사상이 萬憤歌 전체에 흐르게 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 6. 後代作品과의 相關性

流配歌辭의 嘴矢가 된 萬憤歌는 그 以後 流配客들의 歌辭作品에 많은 影響을 끼쳤으며, 이 작품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그 實例로 曹偉와 松江의 관계를 들 수 있다. 曹偉가 流配를 갔던 곳은 鄭澈의 流配地인 全羅道 昌平에서 不遠한 順天이었으며, 曹偉의 文名이 當代에 크게 떨쳤던 만큼同一한 地方의 文人인 鄭松江이 曹偉의 글을 읽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思美人曲〉이나 〈續美人曲〉을 耽讀해 보면, 萬憤歌의 影響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萬憤歌〉와 〈兩美人曲〉을 對比해 볼 때에 下記와 같은 類似樣相을 통해서 이들 兩者的 관련성을 알 수가 있다.

### 萬憤歌

〈天上 白玉京 十二樓 어듸매오〉(제

1행)

〈紫清殿이 가지려니〉(제 2행)

〈츠라리 씨여지여 億萬번 變化하여

南山 놋은 봄의 杜鵑의 낙시 되여 梨

### 兩美人曲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sup>31)</sup>

광한전의 올랏더니

찰하리 씨여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끗나

도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이다가 찰하리 씨

31) 前節은 〈萬憤歌〉의 原文이요, 後節은 〈兩美人曲〉에 해당하는 部分이다.

花 가디 우희 밤낮을 못 올거든>(제4~6행)

<胸中의 싸한 말솜 끊커시 스로리라>(제10행)

<日暮修竹의 翠袖도 冷薄호샤>(제23행)

여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서 님겨신 창안  
해 범드시 비취리라

하날의 추미려 뜨사 일을 사로리라 창  
송 을한소개 슬카장 펴더시니 마암의 머  
근 말삼 슬카장 삶자하니

취수랄 반만 거더 일모수죽의 헛가립도  
하도할샤

上記 梅溪와 松江 兩人의生涯나 環境은 물론이고, 作品의 對比를 통해서 확인할 때도相互의 關聯性을 수긍이 간다.

이러한 影響關係는 松江 作品에 이어지는 肅宗代의 金春澤 〈別思美人曲〉으로 계승이 되고, 다시 英祖朝時 李眞儒의 〈續思美人曲〉, 正祖代의 安肇源의 萬言詞 等에 그 影響이 미치게 된 것이다.<sup>32)</sup>

또한 萬憤歌의 影響은 中宗 2年(1507)에 李顥 等의 獄事로 潭陽 大谷에 流配되었다가 13年만에 解配된 李緒의 〈樂志歌〉에도 미쳤으며,原本이 失傳된 洪暹의 寂憤歌는 中宗 31年頃에 興陽配所에서 지었다고 하는데,<sup>33)</sup> 그 歌題로 보거나 流配地 順天과 興陽의 거리로 볼 때 그 創作動機는 一致된다.

上記 論及의 內容을 갖고서 萬憤歌가 갖는 後代詩歌와의 關聯性을 創作年代·作家外 關聯시켜 提示한다.

萬憤歌(燕山君 9年·曹偉)→樂志歌(中宗 18年·李緒)→寂憤歌(中宗 31年·洪暹)  
→思美人曲, 繢美人曲(宣祖 21年·鄭澈)→別思美人曲(肅宗 34年·金春澤)→續思美人曲(英祖 3年·李眞儒)→萬言詞(正祖代·安肇源)

萬憤歌는 創作年代로부터 200餘年後인 安鼎福의 雜同散異에 실린 것으로 보아서 當時까지 噘傳되었을 것이고, 其間 他 流配歌辭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 III. 結論

以上 曹偉의 萬憤歌에 관해서 論及한 本稿의 內容들을 要約, 整理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32)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莹雪出版社, 1978, p. 261 參照.

33) 姜銓燮, 《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p. 362 參照.

(1) 朝鮮朝의 流配文學은 政治的, 時代의 상황인 士禍를 원인으로 해서 胚胎되었는데, 本稿의 對象인 曹偉의 萬憤歌는 戊午士禍에 연좌된 仕宦者에 의해서 燕山君 4年, 流配地 順天에서 創作된 作品이다.

(2) 萬憤歌의 作家는 字를 太虛, 號를 梅溪라 했던 曹偉이다. 그는 端宗 2年(1454) 慶北 金陵郡 凤溪里에서 出生하여 燕山君 9年(1503) 流配地 順天에서 生涯를 마쳤다.

曹偉는 金宗直門下에서 文名을 얻었으며, 뛰어난 文才로 인해서 成宗朝의 審臣이 되었으나, 戊午士禍때 故舊勢力과 士林派 學者間의 爭權으로 金宗直이 쓴 吊義帝文이 문제로 되었고, 그도 거기에 連累되어 順天으로 流配되어 49세에 오절한 불운한 一生을 살았다.

(3) 曹偉는 成宗 燕山君 兩朝에 亘하여 당대에 文名을 획득하여 杜詩의 護解事業에 관여했으며, 賦暇讀書文臣의 영예도 누리는 한편 漢詩 300餘首와 각 장르에 걸친 諸詩文을 합쳐서 350편의 文學遺產을 남겼다.

(4) 作家 曹偉는 吊義帝文에 관계된 사건으로 戊午, 甲子 兩士禍의 불씨로 連累가 되어서 流配刑을 받았고, 流配地에서 그自身의 抑鬱하고 담담함을 君主를 그리는 心緒로 그의 流麗한 文章을 구사하여 歌辭 萬憤歌에 담아 吐露하였다.

(5) 作品의 構成은 全 9段落으로 序詞·本詞·結詞에 걸쳐서, 序詞는 流配된自身의 처지와 怨憤을 吐露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本詞는 과거의 榮華는 가셔지고 현재는 抑鬱하고 悲慘한 流流生活을 하고 있는 현실상을 표현했으며, 結詞는自身의 潔白함을 呼訴할 대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萬憤歌의 内容은 그의生涯와 관련하여 그가 仕宦者였기에 莫時戀君, 忠誠心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을 細分하여 보면 ① 朝鮮朝 初期文學의 주도적 역할을 한 忠君愛國의 趣意를 담았고, ② 作家自身의 恨과 潔白性을 주장하는 舍憤告祝의 心情을 표현했고, ③ 袞解配를 主題로 내세워 還故鄉이 되고 宙海에 진출을 기대해 본 것이며, ④ 君主의 聖恩에 感泣하고 판대한 처분을 기원한 泣訴感泣의 情感을 노래했다.

(7) 萬憤歌의 作家 曹偉는 강한 현실 집착 속에서 솟아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一片丹心의 戀君의 情으로 점철된 意識的 고뇌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는 囮圉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諦念과 宿命으로 挫折된 세상을 한탄하였다.

(8) 萬憤歌는 總 124行 247句로 4音步格으로 된 典型的 兩班歌辭의 形式

이 고 分量面으로 보았을 때 長型歌辭에 속한다. 表現은 對句形式과 感情의 直說的·露骨的 表現보다는 象徵的 表現을 구사하였다.

(9) 萬憤歌는 樂志歌, 宽憤歌, 兩美人曲, 別思美人曲, 繢美人曲, 萬言詞等의 流配歌辭에 影響을 주었다.

(10) 本稿에서 미친하게 다룬 부분인, 萬憤歌에 나타난 道教의 心象의 解明과 思美人系歌辭로서의 楚辭 및 長門賦 등과의 對比的 檢討는 후일의 課題로 남겨둔다.

## 參 考 文 獻

### 〈資料〉

- 『大東韻府君玉』,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5.
- 『梅溪文集』10卷 5冊, 啓明大圖書館 所藏本.
- 『燃藜室記述』, 民族文化推進會 國譯本, 1966.
- 『雜同散異』, 55冊, 奎章閣所藏本.
- 『成宗實錄』, 探求堂 影印本, 1986.
- 『楚辭』, 中華書局刊本, 1955.
-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 1969.

### 〈單行本〉

- 姜銓燮, 《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 姜周鎮, 《李朝黨爭史研究》, 서울大出版部, 1971.
- 金泉市文化院, 《내고장 우리향토》, 金泉市, 1983.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78.
- 星川清孝, 《楚辭の研究》, 養德社, 1961.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74.
- \_\_\_\_\_, 《韓國歌辭選集》, 集文堂, 1979.
- \_\_\_\_\_, 《國文學概論》, 教學研究社, 1986.
- 鄭尚均, 《韓國中世詩文學史研究》, 翰信文化社, 1986.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2, 知識產業社, 1983.
- 趙潤濟, 《朝鮮詩歌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震擅學會, 《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秦東赫,《李世輔時調研究》,集文堂,1983.

河正玉,《屈原》,太宗出版社,1980.

〈論文〉

安廷煥,〈謫所歌辭研究〉,仁荷大碩士學位論文,1981.

梁淳玗,〈朝鮮朝流配文學研究〉,建國大博士學位論文,1982.

李家源,〈萬憤歌研究〉,東方學志第六輯,延世大東方學研究所,1963.

李泰極,〈歌辭의內容考〉,《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新雅社,1964.

崔五圭,〈流配歌辭의나타난意味表象의深層構造分析〉,國際語文第一輯,1979.

《附》 萬憤歌原典一部

